

정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재개 주말·공휴일 낮시간 최대 32% ↓

기후부, 이번 주말부터 할인 적용
낮 11시부터 14시까지… 총 21일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자료 활용

올해 가을철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을 최대 3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5일 ~ 10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 총 21일간, 낮 11시부터 14시까지 3시간 동안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 공급이 여유로운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유도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할인 정책은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자카소비요금’과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요금’에 모두 적용된다. 주택이나 회사 등에 설치된 자카소비용 충전소는 전력량 요금의 50%가 할인돼 킬로와트시(kWh)당 40.1원~48.6원의 할인 혜택을 즉시 받게 된다.

특히 기후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9600여 기는 한전의 전력량 요금 할인(50%)에 자체 할인을 추가해 전체 충전요금을 최대 32%(kWh당 85.4~97.2원)까지 할인한다. 기후부는 앞서 올해 4월 18일 ~ 5월 31일까지 봄철 주말 공휴일 낮 같은 시간대 전기차 공공충전요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차 충전요금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시간대 할인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 할인을 첫 시행한 바 있다.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이 50% 만큼 할인됨에 따라 소비자용 충전요금은 최대 15%까지 할인됐고, 할인 이전 대비 일평균 약 9.2% 사용 건수가 증가했다. 이번 가을철 할인은 봄철 대비 할인 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가격변화에 따른 충전 수요이동을 분석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한전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충전기 역시 약 11%~17%의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민간 충전 인프라로의 확산도 눈에 띈다. 에버온, 채비, SK일렉트릭, 현대엔지니어링, LG유플러스볼트업 등 19개 민간 충전사업자도 이번 할인 정책에 동참한다. 민간 업체들은 요금 직접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봄·가을철 할인 시행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내년 도입을 검토 중인 전기차 충전요금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봄철 시행에서 확인한 성과를 가을철에는 한층 확대하고자 하며, 다수의 민간업체까지 함께해 이용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가을철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도입을 검토 중인 계시별 충전요금제가 이용자 편의와 전력망 안정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동서발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박차

권명호 사장 등 경영진 예정부지 방문

한국동서발전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1000메가와트(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권명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1000MW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예정부지를 방문해 전력 공급 계획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산단에 대규모 전력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전력계통 연계·용수 공급·부지 여건 등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팹·Fab)이 들어서는 핵심 거점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확보가 산단 성공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특히 동서발전이 추진하는 복합발전소는 국가산단 내 조성 예정인 총 3기와 트(GW) 규모의 발전단지 중 가장 먼저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복합화력 발전소’ 예정부지에 방문해 계통, 시설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동서발전

건설되는 첫 번째 발전소다. 향후 구축될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에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전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권명호 사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주요 기반시설 추진 상황과 향후 건설 공정을 집중 점검했다.

권 사장은 “용인 복합발전소 건설은 단순한 발전설비 확충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에너지 전환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마사회, ‘렛츠런파크’ 인기 콘텐츠 재개

어린이 승마전동차 등 운영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가 가을을 맞아 가족단위 방문객 대상의 인기 콘텐츠 운영을 재개한다.

3일 마사회에 따르면 ‘어린이 승마전동차’는 방문객의 높은 호응 속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조회수 124만을 기록했다. ‘새 단장 후 이달 5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는 페달을 밟으면 상하로 움직이며, 실제 승마와 유사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다. 만 6세 이상은 단독 탑승, 만 6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현장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또 ‘포니 운동회’는 포니들의 귀여운

모습과 아기자기한 재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참여형 공연 콘텐츠다. 올가을부터는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퀴즈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공연은 9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엔 정오와 오후 3시 20분에, 일요일엔 오후 12시 30분과 3시 등 하루 2회씩 진행된다.

포니랜드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영화 ‘오디세이’ 속 트로이목마도 관람할 수 있다. 세로 6m 규모의 대형 트로이목마는 관람뿐만 아니라 내부를 돌아다닐 수도 있는 체험형 구조물이다. 방문객들에게 오디세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체험을 선사한다.

운영 일정과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대폭 해소

공정위 소유·지배 괴리 구조는 여전히

국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폭 해소되는 등 출자구조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단 3.5%의 직접 지분만으로 계열사 등을 동원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지배 괴리’ 구조는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89개 총수 있는 집단, 3293개 소속회사)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 개선 노력에 눈에 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233개로 전년(1435개) 대비 1202개(83.8%)나 급감했다. 태광과 KG이 기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했고, 지난해 1426개의 고리를 가졌던 사조는 이를 220개로 대폭 축소했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시주보유처분에 대한 시장 감사가 강화되면서, 대기업

소속 회사의 평균 자기주식 비중(1.9%)도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착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집계됐다.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에 불과했지만, 계열회사(55.5%)와 임원·비영리법인 등의 지분을 끌어모아 60%가 넘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총수 지분율은 일진글로벌(51.4%), 대명화학(26.4%), 부영(23.1%) 순으로 높았으며, 총수 2세 지분율은 넥슨(65.1%), 한국엔컴퍼니그룹(19.6%) 순이었다.

경영권 승계나 편법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자원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졌거나, 해당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 1047개사로 전년보다 89개사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송미령 “공동영농법인 보조사업 예산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 장관, 공동영농법인·기업 간담회
“전문 교육과정·맞춤형 컨설팅 운영”

공동영농 지원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공동영농법인 활성화가 인구절벽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경북 구미 도개면의 한 영농조합법인을 찾아, 공동영농 필지를 살핀 뒤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밀 제분 공장을 견학하고 공동영농법인·지역사회 소비기업과 간담회도 가졌다.

송 장관은 “내년 공동영농확산지원 보조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할 계획”이라며 “이는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농촌의 차세대 생산 주체로서 공동영농법인을

전면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개소 수를 확대하고 법인의 경영역량 증진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되, 규모화 추진을 위해 기존 면적을 상향(20헥타르·ha→50ha)한다. 또 농지 연결 수준(농지와 맞닿아 있는 시설 혹은 행정구역상 경계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도 높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농가제 공동구입 및 농작업 대행 중심의 공동영농에서, 공동영농법인의 ‘전문경영’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농지 집적 ▲소득 극대화를 위한 이모작 ▲품질 고급화 ▲수익 공유를 실현하는 공동영농 등으로의 진화를

추진한다.

송 장관은 이날 187ha에 달하는 영농면적의 일부를 둘러보고 농지 집적 방식, 작목반 주도의 공동농작업 현황, 개별 영농 대비 생산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 장관은 생산한 밀을 자체 제분하는 가공공장도 찾았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밀가루는 지역 내 소비기업(베이커리·식당 등)의 수요까지 반영했다. 지역 베이커리가 이 밀가루로 우리밀 빵을 제작하는 등 지역 내 생산-소비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자산지소’(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를 실천하는 우수 모델”이라며 격려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보, 코스맥스 美 법인 5000만 달러 지원

국내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글로벌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1위 기업인 코스맥스의 미국 법인에 5000만 달러(약 67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급부상한 K-뷰티의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북미 시장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코스맥스 미국법인은 신규 고객사 유입과 기존 거래처의 주문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급증하는 현지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운전자금 확보가 절실했던 만큼, 이번 무보의 금융지원이 북미 시장 내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보는 K-뷰티와 K-콘텐츠 등 ‘K-

컬처’ 열풍을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소비재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을 포함해 무보가 올해 K-컬처 기업의 해외법인에 제공한 금융 지원 규모는 총 2억 달러를 넘어섰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K-컬처가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금융 공급이 필수”이라며 “K-컬처 선도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